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64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0.30~2025.11.05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0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기반, 청년, 싱가포르, 미래, 대응
경제·관광	상승, 싱가포르, 수출, 생산, 청년
지역·사회	발견(해안/케타민/마약류), 상급종합병원, 우회도로, 광주, 마을

※ 분석 기간 : 25.10.30.~25.11.0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 기반 재정비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 2026년 적극 재정 기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책 참여 주도 -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 - 청년 취업 범죄 보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축산물 첫 수출 - 아세안 시장 교류 확대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산업 집중 투자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 미래 세대 교육 협력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겨울철 재난 안전 대응 - 4.3 역사 왜곡 대응 - 1차 산업 위기 대응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 수산물 출하액 큰 폭 상승 - 외국인 관광객 지속적 상승세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 성료 - 제주산 축산물 첫 수출 실현 - 아세안 시장 확장의 교두보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수출액 역대 최고 증가율 -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 성장 -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감귤 역대 최저 생산 전망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강화 - 스마트 농업 생산 시설 확충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제주청년정책공작소 개최 - 9대 핵심 분야 청년 정책 제안 -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발견(해안/케타민/마약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가 잇단 마약 발견 - 해경 수사 및 감식 의뢰 - 주민 신고 당부 및 경계
	상급종합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병원들의 도전 선언 - 강화된 지정 평가 기준 - 지역 의료 완결성 추구
	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의 공사 중단 촉구 -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 - 교육 환경 및 생태 보존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희생자 광주 순례 - 수형인 명예 회복 노력 - 역사적 연대와 기억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반대 마을 활동 - 마을 공동체 축제 및 행사 - 마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0월 30일~11월 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17건임
 - 정치·행정 분야 368건, 경제·관광 209건, 지역·사회 34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기반, 청년, 싱가포르, 미래, 대응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제 개편 기반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연내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민선 9기로 공식 연기하고, 남은 임기 동안은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기로 결정함. 이는 물리적 시간 부족과 행정구역안에 대한 도민 사회의 이견을 고려한 판단으로, 차기 도정에서 안정적으로 재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 기존 준비단을 축소하고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신설하여 정부의 '5극 3특' 전략에 대응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임. 네
-------	----	---

정치·행정	기반	<p>거티브 방식의 권한 이양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설정됨</p> <p>-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는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2026년 예산안에 약 19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고, 향후 2028년까지 총 15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이를 통해 스타 크리에이터 발굴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전 주기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생태계의 물적 기반을 확충할 예정임 <p>- 2026년 적극 재정 기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위기 속에서도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7조 7875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확장 재정 기조를 확정함. 지방채 4820억 원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경제 역동성을 유지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임 · 확보된 재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시설 투자와 사회복지 예산 확대(최초 25% 돌파)에 집중 투입될 예정임. 이는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지역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한 것임
	청년	<p>- 청년 정책 참여 주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2025 제주청년정책공작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직접 일자리,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 청년 주권회의가 주도한 이 행사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 스스로가 정책 수립의 주체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 행사에서 제안된 청년 맞춤형 행정교육, 대중교통 개선, 리필스테이션 확대 등의 아이디어는 향후 도정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예정임. 제주도는 이러한 청년 주도형 정책 설계를 통해 청년층의 도정 만족도를 높이고, 그들이 지역 사회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임 <p>-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부터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에게 매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함. 이는 만 40세 미만, 어업 경력 3년 이하의 청년들이 초기 소득 불안정을 극복하고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임 · 지원금은 경력에 따라 1년 차 월 110만 원, 2년 차 월 100만 원, 3년 차 월 9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젊은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제주도는 이와 함께 수산업 경영 노하우 전수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청년 어업인 육성 체계를 강화할 방침임 <p>- 청년 취업 범죄 보호</p>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에서는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사기 및 인신매매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함. 김기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악용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도정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함 ·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도내 청년 해외 취업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불법 알선 브로커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강화, 취업 사기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제시됨. 이는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임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축산물 첫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공식 합의되어, 제주가 국내 유일의 싱가포르 축산물 수출 가능 지역이 됨. 이는 제주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고, 철저한 방역 및 위생 관리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임 · 싱가포르식품청(SFA)은 현지 실사를 거쳐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등 도내 4개 업체를 수출 작업장으로 공식 승인함. 제주도는 이를 발판으로 동남아 프리미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청정 제주 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연관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 아세안 시장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제주 브랜드의 아세안 시장 인지도를 제고함. 현지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제주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둠 · 행사 기간 중 운영된 '테이스트 오브 제주' 팝업스토어에서는 감귤 가공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주산 제품을 선보여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음. K-콘텐츠와 연계한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문화적 매력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광 및 통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다짐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산업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2026년 예산안에 인공지능(AI), 우주산업, 바이오헬스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반영함. AI를 활용한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민간 우주산업 인프라 조성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기존 관광·1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미래형 산업 구조로 개편하려는 전략임 · 특히 지역 주도형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디지털 통합 신원인증체계 구축',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 플랫폼' 등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함. 이러한 투자는 제주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로 인정받음. 이로써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지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거래하고 소비하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으

정치·행정	미래	<p>며, 이는 2035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구 지정을 통해 가상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섹터커플링(P2X) 등 에너지 신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실증이 본격화될 예정임. 제주도는 이를 통해 약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2천 명에 가까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p>- 미래 세대 교육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형 협약형 고등학교' 운영 등 9개 안건에 합의함. 지역 전략 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과 연계한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함 · 양 기관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 학교 급식비 인상 등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이러한 교육 투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대응	<p>- 겨울철 재난 안전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다가오는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함. 과거 피해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복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특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제설제 비축량을 대폭 늘리고 민간 제설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제설 대응 역량을 강화함. 주요 도로에 대한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운영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우회 노선 마련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방침임 <p>- 4.3 역사 왜곡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4.3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4.3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을 공식 출범함. 자문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쳐 강력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왜곡 논란이 있는 시설물이나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함. 이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임 <p>- 1차 산업 위기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는 기후 위기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 금융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함. 농어가 부채 경감을 위한 정책 자금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금융 회생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 제주도는 양배추 등 주요 월동채소의 과잉 생산 우려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재배 면적 조절, 산지 폐기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상승, 싱가포르, 수출, 생산,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소비자물가 2.2%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월 제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였고, 이는 여름철 폭염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채소류 가격 급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신선식품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도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추석 명절 수요까지 겹치면서 서민 가게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수산물 출하액 큰 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제주 지역 수산물 어획량 호조 및 양식 광어 등의 수요 증가로 인해 9월 수산물 출하액이 전년 대비 약 34.9% 상승하며 농축수산 분야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기록함 ·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슈에도 불구하고 제주산 청정 수산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가 유지되면서 소비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어가 소득 증대 및 지역 수산업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 지속적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재개 및 국제선 직항 노선 확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크루즈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이 관련 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함
-------	----	---

경제·관광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 관광객(FIT)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 전용 결제 시스템 편의성 개선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싱가포르 제주의 날 성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아세안 시장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개최한 대규모 홍보 행사로, 도내 3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상담을 진행함 · 행사 기간 중 현지 유명 쇼핑몰인 노비나 유나이티드 스퀘어에서 제주 상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감귤 가공품, 화장품 등 다양한 청정 제품을 현지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마련함 - 제주산 축산물 첫 수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싱가포르로 첫 수출길에 올랐으며, 이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제주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자 지역 축산업계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로 평가됨 · 현지 대형 유통업체인 '쿨리나(Culina)'와 연간 한우 200두, 돼지고기 52톤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프리미엄 마케팅을 통해 싱가포르 내 하이엔드 육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임 - 아세안 시장 확장의 교두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인근 아세안 국가로의 경제 영토 확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번 싱가포르 행사에도 인근 국가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광역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함 · 단순 상품 수출을 넘어 관광, 문화 교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지역 내 제주도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예정임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수출액 역대 최고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 데이터 분석 결과, 9월 제주지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8.2%라는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이며 무역통계 작성 이래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성장세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룸 · 이러한 비약적인 수출 증가는 글로벌 IT 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폭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로 인해 제주 지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함 - 반도체 수출의 폭발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수출의 핵심 품목인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등의 수출이 전년 대비 246% 이상 급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고, 이는 주요 수출국인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IT 제조업 경기 회복과 밀접하게 연동된 결과임 ·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향후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과 함께 수출 품목 다변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 - 농수산물 수출 시장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외에도 납치, 감귤, 월동채소 등 제주의 청정 농수산물 수출이 미국, 동남아 등지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K-푸드 열풍과 연계한 적극적인

경제·관광	수출	<p>해외 마케팅이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 농산물의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하여 항공 및 해상 물류비 지원을 강화하고, 현지 저온 유통 시스템(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국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산 감귤 역대 최저 생산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감귤관측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이 약 39만 5천 톤 내외로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감귤 산업 전반에 걸친 수급 조절 대책이 요구됨 · 이러한 생산량 감소는 해거리 현상에 따른 착과량 부족과 생육기 이상 기후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상대적으로 적은 열매 수로 인해 개당 품질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음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저 생산량이 예고되었으나 생육기 기상 여건 호조로 당도 등 품질은 예년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철저한 선별 출하를 통해 '적게 생산하고 제값 받는다' 고품질 전략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함 · 비상품 감귤의 시장 격리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초기 출하 가격을 지지하고, 만감류 등 대체 품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함 - 스마트 농업 생산 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에 한림농협과 애월농협이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첨단 자동화 선별 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생산·유통 거점이 제주 서부 지역에 구축될 예정임 · 이를 통해 감귤 및 월동채소의 선별, 포장, 저장 과정이 자동화·데이터화되어 작업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상품성 균일화를 통한 제주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제주청년정책공작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들이 도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하고 설계하는 '2025 제주청년정책공작소'가 100여 명의 청년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소통의 장을 실현함 ·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제를 설정하고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도출하는 속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음 - 9대 핵심 분야 청년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작소 활동을 통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청년 삶과 직결된 9개 핵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으며, 특히 '제주형 청년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와 같은 주거 안정 대책이 주요하게 논의됨 · 제주도는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예산 확보 과정을 거쳐 실제 202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업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함 - 청년 유출 방지 및 정주 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주거 비용 등으로 인한 제주 청년 인구의 역외 유

지역·사회	발견(해안/케타민/마약류)	<p>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입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경북 포항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류와 포장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관성을 수사 중임. 다만 최근 발생한 중국인 불법 입국 사건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견 장소 인근 해안가에 대한 추가 수색을 진행 중임 <p>- 주민 신고 당부 및 경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경은 해안가에서 ‘차(茶)’가 적힌 포장재나 의심스러운 백색 가루, 블록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로 개봉하거나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함 · 연이은 마약류 발견으로 제주가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은 해상 경계를 강화하고 해양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신고 독려를 이어갈 방침임
	상급종합병원	<p>- 제주 병원들의 도전 선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공모에 공식적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음. 두 병원 모두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임 · 제주한라병원은 개원 42주년 간담회를 통해 의료 자치 실현 의지를 표명하며 공모 참여를 공식화함. 제주대학교병원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탈락의 아쉬움을 딛고 재도전에 나섬 <p>- 강화된 지정 평가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제6기 평가 기준안에 따르면 중증질환 환자 비율 등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지표가 이전보다 상향 조정되어 진입 장벽이 높아짐.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기존 34%에서 38%로 상향되는 등 기준이 강화됨 · 제주 지역은 여전히 서울 권역에 묶여 있어 수도권 대형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임.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용역에서 제시된 진료권역 분리(제주 단독 권역 설정) 여부가 지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p>- 지역 의료 완결성 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종합병원 유치 도전은 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이는 도민들의 의료비 및 부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수적 과제임 · 각 병원은 심뇌혈관질환, 암 등 중증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및 진료 시설 확충을 추진 중임. 이를 통해 국내 의료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임
	우회도로	<p>- 시민단체의 공사 중단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서미모)’ 등 시민단체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한 위법 공사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을 촉구함 · 이들은 도로 건설로 인해 서귀포학생문화원 일대의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과 잔디광장이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함. 해당 숲은 한국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곳임을 강조하며 원형 보존을 요구함 <p>-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혹</p>

지역·사회	우회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단체는 제주도가 전체 4.2km 구간을 3개 공구로 쪼개어 발주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함. 뒤늦게 전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공고했으나,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을 문제 삼음 ·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구간별 자원 조달 방식(국비/지방비)과 추진 시기가 달라 발생한 사안이며, 환경영향평가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함. 현재 전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힘 - 교육 환경 및 생태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도로 예정지가 다수의 학교와 교육 기관이 밀집한 ‘교육 벨트’를 관통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 문제가 우려됨. 시민단체는 도로 개설보다는 학생과 주민을 위한 녹지 공간 보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도시 숲 보존이 필수적이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하는 우회도로의 실제 교통 분산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됨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희생자 광주 순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유족들이 광주를 방문하여 4.3 당시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희생된 분들을 위한 진혼제를 봉행함. 이는 77년 전 타지에서 억울하게 숨진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함임 · 순례단은 구 광주형무소 터와 학살 현장으로 추정되는 불공고개, 도동고개 등을 답사하며 희생의 역사를 되새김. 유족들은 현장에 설치된 위령비 앞에서 제를 올리며 통한의 눈물을 흘림 - 수형인 명예 회복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형무소 수감자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육지 형무소로 이송된 제주 도민들로,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된 것으로 추정됨. 유족들은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신고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최근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와 유해 발굴 등을 통해 일부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음 - 역사적 연대와 기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학살 추정지에 위령비를 설치하는 등 제주 4.3과 광주 지역사회가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남 · 이번 순례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국가 폭력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됨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반대 마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성산읍 신산리, 수산리, 난산리 마을회가 제주도의 ‘제2공항 연계 상생 발전 기본계획 보완 용역’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함 · 이들 마을은 상생 계획이 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진정한 상생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공항 계획을 백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마을 공동체 축제 및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림읍 비양리 마을회는 주민 화합 잔치와 함께 수십 년간 바다를 지켜온 고령 해녀들의 은퇴식을 개최하여 마을 공동체의 결속을 다짐

지역·사회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읍 수망리에서는 람사르 습지 도시 인증을 기념하여 물영아리오름 일대에서 목장길 탐방, 콘서트 등 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습지문화제’를 개최함 - 마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 · 구좌읍 김녕리 마을 청년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이 친환경 활동(텀블러 사용, 플로깅 등) 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탄소 코인’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주목받음 · 서귀포시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